

## 그때, 사랑을 나눌 때

곽노운(본회 감사/인천호스피스 담임목사)

벌써 3월입니다. 3월이면 봄이라고 말씀드려도 어색함이 없겠죠. 하지만 올 봄은 유난히도 저에게 부음(訃音)의 소식이 많은 봄입니다.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니 마음은 즐거운데 들리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만 들리니....

어느 분한테 “어째서 봄의 길목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하고 물으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우리 몸이 활기차게 봄을 맞이하듯 병균들도 이제 활동해야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기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은 ‘시간을 여기서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거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믿는다면 계절의 바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마는 그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마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표준새번역)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

니다. 혹자들은 하나님과 마주서는 마지막이 ‘그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원 봉사자들이 자기의 일을 뒤로하고 아파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거리가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말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나눌 때 좋은 것이며,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 자기가 한 일이 너무 기뻐서 편지를 보낸 분의 사연이 소개된 것을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집에 다와 가는데 택시 정류장 제일 뒤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보고 그를 그의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집에 다 도착해서는 가지고 계시던 몇 개의 사과 중에 하나를 주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띄운다고...

작더라도 사랑을 나눌 때 보람있는 것이며, 나눌 때 기쁜 것이며, 나눌 때 풍성해 지는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